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1. 개념학습 4강 | 임진록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시 직전 보강



선생님, 「임진록」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크게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구성의 결합 방식**을 묻는 문제와, **주인공 김응서의 영웅적 면모 및 소설의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분석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다. 특히 **실제 전쟁에서의 패배를 소설 속에서 통쾌한 승리로 재구성한 의도**를 파악하거나, ‘도사’나 ‘기생’ 같은 조력자의 역할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



선생님, 지문 앞부분에 갑자기 도사가 나타나서 이원익을 돕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소설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 장면은 이 작품의 **전기적(비현실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역사에서는 고전했지만, 소설 속에서는 **신기한 존재가 우리 민족을 돕는 설정을 넣어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독자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고자 한 것이지.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김응서가 종일의 머리를 뺏는데도 종일이 일어서서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고전 소설 특유의 **과장법과 비현실적 묘사**라고 이해하면 돼. 적장인 종일을 죽어서도 위엄을 보일 만큼 **강력한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그런 적을 물리친 김응서의 영웅적 능력과 용맹함을 더욱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김응서를 돕는 기생의 역할도 중요한가요? 다른 영웅 소설과는 좀 다른 느낌이라서요.

중요한 포인트야! 기생은 단순히 주인공을 따르는 인물이 아니라, 적장의 거처에 있는 방울을 숨으로 막는 등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란다. 이는 영웅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들도 왜적에 대항해 활약했음**을 보여주는 설정으로, 민중들의 항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어.



실제 역사와는 다르지만, 왜 이 소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 임진왜란이라는 커다란 시련을 겪은 우리 민족이 **문화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자긍심을 되찾으려 했던 노력**이 담긴 작품이기 때문이지.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1. 개념학습 4강 | 임진록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이원익 왈, / “**도적(일본)**이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를 업수이여기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고, 이일을 선봉으로 삼아 **고각(북과 나팔)**을 울리며 나아가니, **왜장 평행장(일본의 장군)**이 **부장(副將) 종일(일본의 장군)**로 하여금 먼저 싸우라하니, **종일이 병사를 이끌어 내달아 십여 합을 싸우더니 이일이 패하여**(종일과 이일의 싸움에서 이일이 패함.) 달아나니, 종일이 따라 미치지 못하고 **이원익의 진을 치거늘**(종일이 도망가는 이일을 쫓아가다가 이원익의 진을 침.) 원익이 대패하여 도망하더니, 문득 **한 도사(신이한 존재. 이원익을 도와줌. 도사가 이원익을 도와주는 것은 신이한 존재가 조선을 도와준다는 인식을 제시함. “도사’가 이원익을 돕는 장면은 우리 민족의 원을 위안하는 역할을 하겠군.’이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가 원익의 위태함을 보고 [소매 안에서 복성화차*를 내어 두르며, 또 백옥 호리병을 공중에서 기울여 피 같은 물을 내어 적진에 뿌리니, 곧바로 도적이 손을 놀리지 못하고 발이 땅에 붙는지라.]([]:전기적 요소. 작품을 감상한 내용을 묻는 문제에서 ‘난 이 작품에 도사의 행위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 이러한 비현실적 요소는 이 소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전 소설에 종종 나타나는 특징인 것 같아.’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일이 군사를 다 죽이고 황망히 성안에 들어가 굳이 지키고 나지 아니하는지라. 원익이 패군을 거두어 진을 치고 여러 장수더러 왈,

“**종일의 적수를 얻어야 종일을 잡으리라.**”(이원익은 자신이 종일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함.)

하더니 문득 한 군사가 왈,

“[소인의 **동리(마을)**에 한 양반이 있으니 성명은 김응서라. **용맹이 남다르더니, 일일은 큰 범이 담을 넘어와 개를 물고 도로 넘어가거늘, 응서가 몸을 솟아 범의 꼬리를 잡고 덜미를 잡아 땅에 부딪쳐 죽이니**(김응서의 비범함), 이는 세상에 드문 장사이더이다.]”([]: 한 군사가 김응서를 종일의 적수로 추천함. ‘인물의 말을 통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니, 원익이 크게 기뻐 왈,

“네 동리가 어디요?” / 대답하여 왈,

“**용강(龍岡)**이라.”

하거늘, 원익이 즉시 용강에 이르러 김응서를 찾아보고, 종일의 용맹을 이르며 가기를 청하니 응서 왈,

“내 재주도 없을 뿐 아니라 이제 부친 상중에 있으니 어찌하리오.” / 원익 왈,

“**비록 상중이나 방금 국세 위태하니 백성 된 자가 어찌 사사로운 정을 돌아보리오.**”(원익은 거절하는 응서를 설득함. 이원익의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상황의 불가피성을 들어 상대방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며 가기를 간청하니, 응서 할 수 없이 영전(靈前)에 통곡하고 평복을 갈아입고 원익을 좇아 진에 이르니, 원익이 사랑하며 보검을 주어 연습하라 하더니, 하루는 응서 왈,

“**소장(김응서)**이 오늘 밤에 평양성을 넘어 들어가 종일을 베어 오리니 **장군(이원익)**은 일지병*을 성외에 매복하였다가 소장의 형세를 보아 **접응(가까이 다가감.)**하소서.”

하고 비수를 끼고 성을 넘어 들어가니 **순라군(순찰군)**이 졸거늘, 응서 자취 없이 군막을 지나 관문에 다다르니, 수문군 십여 인이 큰 칼을 좌우에 세우고 잠이 들었는지라, 응서 칼을 빼어 차례로 베고 문을 넘어가니 관중(關中)에 등축이 휘황하고 인적이 고요한지라, 정히 주저하더니 마침 **수청하던 기생(조선 사람)**이 **소피(오줌)** 보러 나오다가 응서를 보고 놀라 왈.

“어떤 사람이관대 위태한 곳에 들어왔느냐?” / 응서 왈,

“나는 이원익의 부장(副將)이러니 이제 **적장(종일)**을 죽이고자 하나니, 너도 조선 사람이라, 나라를 위하여 적장의 동정을 자세히 이르라.” / 그 기생 왈,

“종일이 관중에 거쳐하되 **사면에 비단 휘장을 드리워 장의 귀마다 방울을 달아 조금 요동하면 방울 소리가 요란한지라**(종일의 거쳐는 경계가 삼엄함.). 이로써 불우지변을 방지하며, **삼경(밤 11시부터 오전 1시)** 전에는 귀로 자며 눈으로 보고 삼경 후는 눈으로 자며 귀로 듣고 **사경(오전 1시부터 오전 3시)**이 되면 귀와 눈을 모두 자고 보지 아니하니, 이제 **천비(기생)** 먼저 들어가 저의 잠등을 탐지하여 **방울을 숨으로 막고 나오거든**(김응서가 종일의 거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 장군이 들어가소서.”

하고 들어가더니 이윽고 나오는지라. 응서 즉시 들어가 보니 종일이 술에 취하고 장창 보검을 좌우 손에 잡고 상에 누워 자거늘, 응서 급히 칼을 들어 종일의 머리를 한 번 찌고 몸을 날려 들보 위에 앉으니, **종일의 머리 떨어지며**(김응서가 자고 있는 종일을 죽임. ‘김응서가 적장인 종일을 벤 것은 민족의 한을 치유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군.’이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분기를 발하여 일어서며 잡았던 보검으로 들보를 치니, 응서의 군복 자락이 맞아 떨어지며**(종일은 죽은 상태에서도 칼로 들보를 쳐 응서의 군복 자락을 뺌.) 종일의 머리와 몸이 상 아래 거꾸러지는지라. 응서 내려와 종일의 머리를 들고 나올새, 그 기생이 울며 왈,

“장군이 **소첩(기생)**을 사지에 두고 가려 하느냐?”

하며 따라오거늘, 응서 불쌍히 여겨 데리고 나오더니, 장중이 자연 시끄러워 순라군이 일시에 불을 들고 창검을 두르며 고향하니, 응서 기생을 보고 왈,

“네 손을 죽도록 놓지 말라.”

하고 칼을 두르며 나오더니, 성 밑에 다다라서는 왜장 평의지가 칼을 들고 크게 꾸짖으며 왈,

“**네(김응서) 간계(奸計)(간사한 꾀)**로 **우리 장수(종일)**를 죽이고 감히 나가고자 하느냐.”

하며 달려들거늘, **응서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응서의 칼이 있는 곳에 도적의 머리 추풍낙엽 같으니**(편집자적 논평. ‘작품 안 서술자가 사건이나 인물의 언행에 대해 직접 논평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비유와 과장법을 사용해 주인공의 활약상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평의지 당하지 못하여 물러가거늘, 응서 바야흐로 성을 넘어려 할새, 비록 용맹하나 기생을 업고 무수한 도적을 대적하매 기력이 기진한지라. 즉시 전대로 기생의 허리를 매어 성을 넘어가고자 하더니, **평수맹(일본의 장군)**이 달려들어 한칼로 기생을 베고 바로 응서를 취하거늘, 응서 **대로(분노)**하여 평수맹을 일 합에 베니 적병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달아나는지라. 응서 도적 수습을 베고 성을 넘어 나오니, **부장 안일봉(조선의 장군)**이 군을 거느려 매복하였다가 응서를 접응하여 진중으로 돌아와 전말을 고하니, 원익이 크게 기뻐하여 응서의 공을 치하하고 종일의 머리를 기에 달아 호령하더라.

- 작자 미상, 「**입진록(다른 역사 군담 소설과 비교하는 문제에서 ‘윗글은 대부분의 다른 역사 군담 소설들이 가공의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실적인 역사적 배경을 사용하고 있어.’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입진록은 실제 입진왜란을 배경으로 서술하는 작품입니다.)**」

복성화차: 길한 별이 그려진 꽃 비녀

일지병: 한 무리의 병사

핵심 정리

- 갈래: 역사 소설, 군담 소설
- 성격: 전기적, 설화적
- 주제: 임진왜란에 관한 정신적 위안 및 민족의식 고취
-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 배경: 임진왜란
- 특징
 - 실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으나 허구적 구성으로 역사적 아픔을 겪은 민중을 위로함.
 - 실존했던 인물을 등장시켜 사실성을 부여함.
 - 우리 민족을 선인, 왜를 악인으로 설정한 대립 구도를 통해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함.

전체 줄거리

선조 25년(1592, 임진년),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한다. 왜란을 경고한 우의정 최일경의 진언을 무시한 조선 조정은, 아무런 방비 없이 왜군을 맞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만다. 부산을 시작으로 삼시간에 도성까지 쳐들어오는 왜군에게 위기를 느낀 임금과 조정 대신들은 도성을 버리고 평양성으로 거쳐 의주까지 달아난다. 다행히 이순신 장군, 곽재우, 김덕령, 김응서 등의 활약으로 왜장을 물리치고 조선 땅을 서서히 되찾아 간다. 그리고 좌의정 유성룡의 구원 요청으로 이여송이 이끄는 명군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전세는 역전된다. 조선군은 명군과 연합하여 평양성을 탈환하고 왜군을 남쪽 끝까지 몰아낸다. 그사이 히데요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왜군은 일본 땅으로 돌아가려 하고, 이러한 왜군을 이순신이 크게 물리치면서 일본의 조선 침략은 끝난다. 그 뒤 이여송은 왜군을 물리친 조선이 혹여 명나라를 넘볼까 걱정하여 조선의 혈맥을 끊으려 조선 산천을 돌아다니지만 도리어 혼쭐이 나서 명나라로 돌아간다. 전쟁이 끝난 뒤, 김응서와 강홍립이 군사 수만을 이끌고 일본으로 쳐들어가지만, 강홍립의 고집으로 인해 일본 정벌 계획은 수포가 되고 두 장수는 항복한다. 그 후 김응서는 왜왕에 대한 복수를 꿈꾸지만 실패한 후 자결한다. 일본 정벌 실패 후, 서산 대사의 제자 사명당이 일본에 사신으로 건너가 왜왕을 혼쭐낸 후 항복 문서를 받아 돌아온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영웅 군담 소설로,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설화가 여러 담담층을 거쳐 전승되다가 후일 소설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다른 고전 소설처럼 특정 인물의 생애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성을 취하지 않고,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뼈대로 하면서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많은 인물의 활약상을 파노라마처럼 전개하고 있다.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인물과 인물 간의 관련성이 적은 편이며, 인물의 활약상에 허구적인 내용이 많기도 해서 설화적 측면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 일제 강점기에는 금서로 지목받아 불태워지는 수난을 겪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가치가 더 높아져 은밀히 전파되어, 현전하는 이본이 100종이 넘는다.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1. 개념학습 4강 | 임진록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원익 왈, / “도적이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를 업수이여기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고, 이일을 선봉으로 삼아 고각을 울리며 나아가니, 왜장 평행장이 부장(副將) 종일로 하여금 먼저 싸우라하니, 종일이 병사를 이끌어 내달아 십여 합을 싸우더니 이일이 패하여 달아나니, 종일이 따라미치지 못하고 이원익의 진을 치거늘 원익이 대패하여 도망하더니, 문득 한 도사가 원익의 위태함을 보고 소매 안에서 복성화차*를 내어 두르며, 또 백옥 호리병을 공중에서 기울여 피 같은 물을 내어 적진에 뿌리니, 곧바로 도적이 손을 놀리지 못하고 발이 땅에 붙는지라. 이로 인하여 종일이 군사를 다 죽이고 황망히 성안에 들어가 굳이 지키고 나지 아니하는지라. 원익이 패군을 거두어 진을 치고 여러 장수더러 왈,

“종일의 적수를 얻어야 종일을 잡으리라.”

하더니 문득 한 군사가 왈,

“소인의 동리에 한 양반이 있으니 성명은 김응서라, 용맹이 남다르더니. 일일은 큰 범이 담을 넘어와 개를 물고 도로 넘어가거늘, 응서가 몸을 솟아 범의 꼬리를 잡고 털미를 잡아 땅에 부딪쳐 죽이니, 이는 세상에 드문 장사이더이다.”

하니, 원익이 크게 기뻐 왈,

“네 동리가 어디요?” / 대답하여 왈,

“용강(龍岡)이라.”

하거늘, 원익이 즉시 용강에 이르러 김응서를 찾아보고, 종일의 용맹을 이르며 가기를 청하니 응서 왈,

“내 재주도 없을 뿐 아니라 이제 부친 상중에 있으니 어찌하리오.” / 원익 왈,

[A] “비록 상중이나 방금 국세 위태하니 백성된 자가 어찌 사사로운 정을 돌아보리오.”

하며 가기를 간청하니, 응서 할 수 없이 영전(靈前)에 통곡하고 평복을 갈아입고 원익을 좇아 진에 이르니, 원익이 사랑하며 보검을 주어 연습하라 하

더니, 하루는 응서 왈,

“소장이 오늘 밤에 평양성을 넘어 들어가 종일을 베어 오리니 장군은 일지병*을 성외에 매복하였다가 소장의 형세를 보아 접응하소서.”

하고 비수를 끼고 성을 넘어 들어가니 순라군이 즐거늘, 응서 자취 없이 군막을 지나 관문에 다다르니, 수문군 십여 인이 큰 칼을 좌우에 세우고 잠이 들었는지라, 응서 칼을 빼어 차례로 베고 문을 넘어가니 관중(關中)에 등축이 휘황하고 인적이 고요한지라, 정히 주저하더니 마침 수청하던 기생이 소피 보러 나오다가 응서를 보고 놀라 왈,

“어떤 사람이관대 위태한 곳에 들어왔느냐?” / 응서 왈,

“나는 이원익의 부장(副將)이러니 이제 적장을 죽이고자 하니, 너도 조선 사람이라, 나라를 위하여 적장의 동정을 자세히 이르라.” / 그 기생 왈,

“종일이 관중에 거처하되 사면에 비단 휘장을 드리워 장의 귀마다 방울을 달아 조금 요동하면 방울 소리가 요란한지라. 이로써 불우지변을 방지하며, 삼경 전에는 귀로 자며 눈으로 보고 삼경 후에는 눈으로 자며 귀로 듣고 사경이 되면 귀와 눈을 모두 자고 보지 아니하니, 이제 천비 먼저 들어가 저의 잠들을 탐지하여 방울을 숨으로 막고 나오거든 장군이 들어가소서.”

하고 들어가더니 이윽고 나오는지라. 응서 즉시 들어가 보니 종일이 술에 취하고 장창 보검을 좌우 손에 잡고 상에 누워 자거늘, 응서 급히 칼을 들어 종일의 머리를 한 번 찌고 몸을 날려 들보 위에 앉으니. 종일의 머리 떨어지며 분기를 발하여 일어서며 잡았던 보검으로 들보를 치니, 응서의 군복 자락이 맞아 떨어지며 종일의 머리와 몸이 상 아래 거꾸러지는지라. 응서 내려와 종일의 머리를 들고 나올새, 그 기생이 울며 왈,

“장군이 소첩을 사지에 두고 가려 하느냐?”

하며 따라오거늘, 응서 불쌍히 여겨 데리고 나오더니, 장중이 자연 시끄러워 순라군이 일시에 불을 들고 창검을 두르며 고함하니, 응서 기생을 보고 왈,

“네 손을 죽도록 놓지 말라.”

하고 칼을 두르며 나오더니, 성 밑에 다다라서는 왜장 평의지가 칼을 들고 크게 꾸짖으며 왈,

“네 간계(奸計)로 우리 장수를 죽이고 감히 나가 고자 하느냐.”

하며 달려들거늘, 응서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응서의 칼이 있는 곳에 도적의 머리 추풍낙엽 같으니, 평의지 당하지 못하여 물러가거늘, 응서 바야흐로 성을 넘으려 할새, 비록 용맹하나 기생을 업고 무수한 도적을 대적하며 기력이 기진한지라. 즉시 전대로 기생의 허리를 매어 성을 넘어가고자 하더니, 평수맹이 달려들어 한칼로 기생을 베고 바로 응서를 취하거늘, 응서 대로하여 평수맹을 일 합에 베니 적병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달아나는지라. 응서 도적수십을 베고 성을 넘어 나오니, 부장 안일봉이 군을 거느려 매복하였다가 응서를 접응하여 진중으로 돌아와 전말을 고하니, 원익이 크게 기뻐하여 응서의 공을 치하하고 종일의 머리를 기에 달아 호령하더라.

- 작자 미상, 「임진록」

복성화차: 길한 별이 그려진 꽃 비녀

일지병: 한 무리의 병사

1. 실제 역사에 허구를 가미한 의도를 고려하여 이 글에 부제를 붙인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쟁으로 인한 민중들의 고통
- ② 전쟁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수작
- ③ 민중들의 영웅에 대한 끝없는 갈망
- ④ 패전을 통쾌한 승리로 재구성한 작품
- ⑤ 전란 속 중심인물들의 기이한 행적을 담은 기상천외한 걸작

2. <보기>를 참고할 때, 이 글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소설에 등장하는 내용은 그 깊이에 따라 한(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원(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임진록」은 민족의 원(怨)과 한(恨)을 다루고 있다.

- ① 김응서가 적장인 종일을 베는 것은 민족의 한을 치유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군.
- ② ‘도사’가 이원익을 돕는 장면은 우리 민족의 원을 위안하는 역할을 하겠군.
- ③ 평수맹이 ‘한칼로 기생을 베는 것’에서 전쟁 당시 희생된 우리 민중들의 한이 드러나는군.
- ④ 실존 인물인 김응서를 작품에 등장시킨 것은 역사적 사건에 기반하여 흥미를 더하는 장치가 될 수 있겠군.
- ⑤ 지배 계층이 아닌 기생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기생들이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ㄱ.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을 제시하고 있다.
- ㄴ. 인물의 내면 독백을 통해 내적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ㄷ. 비현실적인 장면을 통해 인물의 영웅적 면모를 제시하고 있다.
- ㄹ.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4. [A]에 나타난 ‘이원익’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이 지닌 약점을 나열하며 조롱하고 있다.
- ② 자신의 감정을 근거로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③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상대방을 위협하고 있다.
- ④ 거짓으로 말을 꾸며 상대방의 동정을 호소하고

있다.

- ⑤ 상황의 불가피성을 들어 상대방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고난도

5. <보기>를 참고할 때, 이 글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임진록」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역사 군담 소설이다. 일반 군담 소설은 역사적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역사 군담 소설은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다. 이 작품에는 주인공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조선인으로서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의식과 일반 민중들의 활약을 보여주려는 민중들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 작품에 묘사된 내용 또한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전개되었는데, 작품을 통해 전란의 상처를 위로받고 민족의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 ① 이일이 종일에게 패하고 달아나는 장면은 우리 민족의 시련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 ② 도사가 이원익의 위태함을 보고 도와주는 것은 임진왜란의 상처를 보상받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 ③ 비범한 능력을 지닌 김응서의 모습을 부각한 것은 왜에 대한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 ④ 기생의 도움을 받아 종일의 거처에 들어가는 내용은 일반 민중의 활약을 보여주는 것이다.
- ⑤ 일반적 군담 소설과 달리 실제로 있었던 전쟁을 다루고 있으며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전개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6.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과거사를 중간에 삽입하여 서술상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 ② 개인 간의 갈등을 통하여 사회 집단의 문제를 비

판하고 있다.

- ③ 작품 안 서술자가 사건이나 인물의 언행에 대해 직접 논평하고 있다.
- ④ 적절한 상황 묘사를 통하여 인물들의 대조되는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비유와 과장법을 사용해 주인공의 활약을 부각시키고 있다.

7. '김응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범한 능력을 가진 영웅적 인물이다.
- ② 일본에 대한 민족적 적개심을 대변한다.
- ③ 부친의 상종임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뛰어든 인물이다.
- ④ 평민 계층을 대표하여 영웅적 활약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 ⑤ 적을 무찌르는 사건을 통해 민중들에게 정신적 만족을 준다.

8. 이 글을 읽고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닌 것은?

- ① 이일이 종일과 함께 십여 합을 싸우는 모습
- ② 도사가 소매에서 복성화차를 꺼내는 모습
- ③ 원익이 김응서를 만나기 위해 용강으로 떠나는 모습
- ④ 김응서가 조용히 적진에 다가가는 모습
- ⑤ 순찰하고 있는 순라군을 피해 성벽을 넘어 들어가는 김응서의 모습

9. '이원익'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종일과 맞붙어 적수가 될 정도로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다.
- ② 김응서를 만나러 직접 움직이는 인물이다.
- ③ 도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하는 인물이다.
- ④ 종일의 적수가 되지 않아 크게 패하는 인물이다.
- ⑤ 김응서를 설득하여 전장에 나서게 하는 인물이다.

고난도 10. 다음은 이 작품을 읽고 학생들이 감상한 내용이다. 작품의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영: “난 김응서가 상중이라 전장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어. 결국 이 작품은 부모님에 대한 효를 강조하여 유교적 가치관을 제시하는 내용인 것 같아.”
- ② 나영: “난 사건을 서술하는 이야기의 문체가 오늘날의 문체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데 주목했어. 옛날에는 실제로 말을 할 때와 글로 쓸 때의 문체가 달랐던 것 같아.”
- ③ 다영: “난 김응서가 일본 장수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보고 통쾌함을 느꼈어. 결국 이 작품은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창작된 것 같아.”
- ④ 자영: “난 이 작품에 도사의 행위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 이러한 비현실적 요소는 이 소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전 소설에 종종 나타나는 특징인 것 같아.”
- ⑤ 하영: “난 작품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데 주목했어. 이 작품에서 현실적으로 패한 전쟁을 승리한 전쟁인 것처럼 꾸며 놓은 것은 민중들이 겪는 패배 의식에 대해 정신적 보상을 주고자 하는 의도 때문인 것 같아.”

고난도 11.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현실 원칙 때문에 적절하게 규제된 욕망이 마음의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가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에 슬그머니 작용하여 객관적 사실을 자기 욕망에 맞게 변형시킨다. 객관적 사실이 자기의 욕망을 크게 자극하지 않을 때 그 변형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 다시 말해 자아 밖에 있는 사실이 자아 속에 있는 욕망을 크게 자극할 때에 그 변형은 갑작스럽고 전체적인 것이 된다. 그 세계는 세계를 욕망하는 그의 변형된 세계이다. 그 세계는 작가가 해석하고 바꿔 놓은 세계이다. 그 세계가 살 만한 세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작가에게 중요하지 않다. 작가에게 중요한 것은 그 세계가 자기의 욕망이 만든 세계라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작가는 그 변형된 세계를 독자와도 공감하고자 한다.

- ① 사료에 대한 독창적 해석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
- ② 역사적 사실의 가미를 통해 변형된 세계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 ③ 사실의 변용을 통해 실제 사건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다.
- ④ 역사적 사실을 충실하게 재현함으로써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⑤ 작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개선해 가고자 한다.

12.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내면 심리를 독백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② 작품 밖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되 서술자의 주관도 곁들이고 있다.
- ③ 치밀한 배경 묘사를 통해 앞으로의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교차하여 주인공의 활약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⑤ 사건을 역순행적으로 배치하여 전체 이야기 구조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의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실적인 역사적 배경을 사용하고 있어.

13.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대다수의 군담 소설들이 상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데 비해 「임진록」은 역사적인 사실에 과장을 가미하여 이루어진 작품으로서, 당시에 들어온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의 영향을 받았다. 즉, 현실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으로 참담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에서는 곳곳에서 승전하는 아군이 묘사되었고, 특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던 도술이나 전기적 요소를 사용한 전쟁 설화 등을 환상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마지막을 승리로 서술하였다.

- ① 윗글에는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려는 우리 민족의 심정이 담겨 있구나.
- ② 윗글에 소개된 사건 중에는 민간에 전해지던 전쟁 설화들이 문자로 정착된 것도 포함되어 있겠구나.
- ③ 윗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떤 면모를 보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을 알 수 있겠군.
- ④ 윗글에는 왜적과의 전쟁으로 참담한 고통을 겪은 우리 민족이 왜적에 대해 가졌던 울분과 복수심이 표현되어 있어.
- ⑤ 윗글은 대부분의 다른 역사 군담 소설들이 가공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임진록은 임진왜란 때의 굴욕적인 패배를 허구적 상상을 통해 통쾌하게 승리하는 것으로 변용시킨 작품으로, 김응서가 '종일'을 단칼에 베는 장면이나 '평수맹'을 일 함에 베는 장면에서 임진왜란의 패배를 통쾌한 승리로 재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

- ① '실제 역사에 허구를 가미한 의도'를 고려했을 때 전쟁으로 인한 민중들의 고통은 부제로 적절하지 않다.
- ② '허구'를 가미한 의도를 고려한 부제로 '사실'적으로 재현했다는 부제는 적절하지 않다.
- ③ 영웅이 제시되는 것은 맞으나, 영웅에 대한 끝없는 갈망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부제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도사가 도술을 부리는 장면은 있지만, 중심인물들의 기이한 행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 [정답] ⑤

기생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어렵다. 또한 기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조력자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했다고 할 수 없다.

- ① 김응서가 적장인 종일을 뱀으로써 전란의 상처를 위로받고 민족의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의식이 반영되었다.
- ② 도사가 이원익을 도와 이원익이 위기에서 벗어남으로써 초월적 존재가 조선을 도와준다는 인식을 제공하여 우리 민족의 원을 위안하는 역할을 한다.
- ③ **[매력적인 오답]** 조선의 기생이 평수맹으로 인해 죽는 사건은 전란으로 인해 고통받고 희생당하는 민중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당시 민중들의 고통과 현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④ 실제 인물인 '김응서'를 작품에 등장시켜 당시 일어난 사건에 기반하면서도 설화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흥미를 더할 수 있게 된다.

3. [정답] ②

- ㄱ. '기생'의 도움을 받아 종일의 거처에 들어가는 김응서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ㄴ. 머리가 잘렸음에도 보검으로 들보를 치는 종일을 죽이는 김응서의 모습에서 비현실적인 장면을 통해 김응서의 영웅적 면모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ㄷ. 인물의 내면 독백이나 내적 갈등은 제시되지 않는다.
 - ㄹ. 공간의 이동은 있으나,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하는 것은 아니다.
- ①, ③, ④, ⑤ 윗글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짚지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4. [정답] ⑤

- '비록 상중이나 방금 국세 위태하니'에서 상황이 불가피함을 들어 김응서가 전쟁에 참전하기를 설득하고 있다.
- ① 김응서의 약점을 나열하여 조롱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② 자신의 감정을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③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상대방을 위협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④ 거짓으로 말을 꾸민 부분은 찾을 수 없다.

5. [정답] ①

- 이일이 종일에게 패하고 달아난 이후 원익의 위태함을 보고 도사가 도와주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시련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식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 ② **[매력적인 오답]** 비현실적인 존재(도사)의 도움을 받아 일본의 장군을 물리치는 것은 신이한 존재가 조선을 돕는다는 의식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임진왜란의 패배에 대한 상처를 보상받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적절하다.
 - ③ 김응서가 뱀을 죽이는 내용, 종일을 죽이는 장면에서 비범한 능력을 지닌 김응서의 부각한 것은 조선인의 우월함을 드러낸 것이다.
 - ④ 일반 민중인 기생이 영웅(김응서)을 도와주는 장면은 일반 민중(기생)의 활약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 ⑤ '임진왜란'이라는 실제 있었던 전쟁을 다루고 있으며 도사의 도움과 같이 설화적 상상력을 가미하

여 민족의식을 지켜내고 있다.

6. [정답] ⑤

‘응서의 칼이 있는 곳에 도적의 머리 추풍낙엽 같으니’, ‘일 합에 베니 적병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등을 통해 비유와 과장법을 사용해 주인공(김응서)의 활약상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과거사가 삽입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② 개인 간의 갈등을 통해 사회 집단의 문제를 비판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③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작품 안이 아닌 밖에 위치한다.
- ④ 인물들의 대조되는 심리 상태는 드러나지 않는다.

7. [정답] ④

“소인의 동리에 한 양반이 있으니”에서 김응서의 신분 양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평민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범을 죽이는 내용’, ‘종일을 죽이는 장면’에서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일본 장군을 죽이는 내용에서 일본에 대한 우리 민중의 민족적 적개심을 대변하는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이제 부친 상중에 있으니”, ‘응서 하는 수 없이 영전에 통곡하고 ~’에서 김응서가 부친의 상중이지만 전장에 뛰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일본군인 ‘종일’, ‘평의지’, ‘평수맹’을 죽이거나 이기는 모습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정신적 만족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정답] ⑤

‘순라군이 즐거늘’에서 순라군이 순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순찰하고 있는 순라군을 피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종일이 병사를 이끌어 내달아 십여 합을 싸우더니 이일이 패하여 달아나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한 도사가 원익의 위태함을 보고 소매 안에서 복성화차를 내어 두르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원익이 즉시 용강에 이르러 김응서를 찾아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응서 자취 없이 군막을 지나 관문에 다다르니’에

서 확인할 수 있다.

9. [정답] ①

‘이원익의 진을 치거늘 원익이 대패하여 도망하더니’에서 알 수 있듯 종일과 맞붙어 적수가 되지 않는 인물이다.

- ② ‘원익이 즉시 용강에 이르러 김응서를 찾아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한 도사가 원익의 위태함을 보고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종일이 ~ 이원익의 진을 치거늘 원익이 대패하여 도망하더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종일의 용맹을 이르며 가기를 칭하니 ~ 원익을 쫓아 진에 이르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정답] ①

김응서는 아버지의 상중임에도 전장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유교적 가치관인 효를 강조하는 내용이 아닌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인물들의 활약이 중심 내용이다.

- ② **[매력적인 오답]** 고전 소설의 특징 중 하나로 ‘-니’, ‘-지라’와 같은 오늘날과는 다른 문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임진왜란이라는 참담한 현실에서 김응서가 싸움에서 이기는 장면들을 제시해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고 있다.
- ④ 도사가 원익을 돕는 장면은 비현실적인 요소로 고전 소설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이다.
- ⑤ 이 작품은 민중의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해 실제 사건에 기반하되 임진왜란의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서술하였다.

11. [정답] ③

임진왜란이라는 실제 사건으로부터 받은 민족적 상처를 민중들의 욕망에 맞게 변형시킨 승리의 사건들로 제시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고 있다.

- ① 역사적 사실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려는 것이지 사료에 대한 독창적 해석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변형된 세계를 제시하는 것이지만 변형된 세계에 역사적 사실의 가미를 통해 타당성을 높이려는 것은 아니다.

- ④ 역사적 사실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지 않다.
- ⑤ 작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12. 정답 ②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 서술자가 ‘응서의 칼이 ~ 추풍낙엽 같으니’와 같이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자신의 주관도 곁들이고 있다.

- ① 독백이 사용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③ 배경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④ 이 작품은 시간 순서대로 제시되는 작품으로 과거와 현재가 반복적으로 교차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⑤ 이 작품은 시간 순서대로 제시되는 순행적 구성으로 사건을 역순행적으로 배치하고 있지 않다.

13. 정답 ③

<보기>의 ‘사적인 사실에 과장을 가미하여 이루어진 작품’에서 알 수 있듯 해당 작품을 보고 실제 상황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김응서가 일본 장군을 무찌르는 장면에서 승리를 취해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려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보기>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에서 알 수 있듯 민간에 전해지던 전쟁 설화들이 소설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왜적들이 죽는 장면 등을 통해 임진왜란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우리 민족이 왜적에 대해 가졌던 울분을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보기>의 ‘대다수의 군담 소설들이 상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데 비해 ‘임진록’은 역사적인 사실에 과장을 가미하여 이루어진 작품’에서 알 수 있듯 임진록은 실제 사건인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